

### 더블 라이트한 단계를 통해서 애씀은 끝난다.

오늘 머나먼 나라의 주민인 밥다다는 머나먼 나라에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너희들 모두 머나먼 나라에서 왔고 밥다다도 역시 머나먼 나라에서 왔다. 전체 모든 곳에서 제일 멀고 또 전체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밥다다의 나라다. 그것은 이 물질세계의 경계 너머에 있을 정도로 참으로 멀고, 그것은 다른 세계다. 너희들은 모두 물질세계에서 왔고, 밥다다는 이 물질세계 너머에 있는 나라로부터 서틀 리전을 경유해서 왔고, 브라마 바바를 함께 데리고 왔다. 얼마나 가까운지 그는 1초에 여기에 도착할 수 있다. 너희는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시간이 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도 역시 많이 써야 한다. 너희가 그 돈을 다 저축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오는 데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보물이 있으면 너희는 1초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에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느냐?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들이 왕국의 행운을 잃은 뒤에 여러 생 동안 몸, 마음, 부로 무척 힘들게 일해 왔다는 것을 안다. 너희는 왕관과 옥좌를 가진 세계의 주인이었고, 모든 성취가 가득한 보물창고의 주인이었다. 심지어 자연도 너희를 섬겼다. 너희는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자아의 군주였는데 이젠 종속되었으니 현재 너희는 뭘 하느냐? 너희는 지금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수고롭게 애쓰는 것이 아니냐? 왕들과 수입을 벌어야 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된 자들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아주 여러 생 동안 너희는 몸의 생계를 위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또 너희 마음을 아버지와 연결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영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갖가지 유형의 신봉을 행해왔고, 또 부를 축적하려고 너희는 여러 생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있던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그 모든 것을 보라! 그래서 자녀인 너희들이 애쓰는 것을 보며 밥다다는 그 노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너희를 쉬운 요기로 만들었다. 그는 너희가 1초에 자아주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만들었다. 그는 너희를 노력하는 데서 해방시켰다. 너희 모두 바바가 너희를 직업에서 해방시켜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든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신을 위한 봉사로 그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의 직업이라고 여기며 일하고 있지는 않다. 너희는 신탁관리자로서 그것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업무가 사랑으로 변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봉사에 대한 사랑, 만남을 축하하는 데 대한 사랑으로 너희들은 그것을 수고라고 느끼지 않는다.

둘째로 아버지는 카라반하르 (너희에게 영감을 고취하여 너희가 행동하게 만드는 분)이고 너희는 과제를 수행하는 도구다. 너희는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의 힘으로, 즉 너희의 인식을 통한 연결로 과제를 명목상으로만 수행하는 자들이다. 수많은 거대한 기계들이 전기 연결을 기반으로 기능하므로 기반은 빛 (전기)이다. 너희들 역시 모두 온갖 행위를 행하면서 연결되는 것을 바탕으로 더블 라이트하게 되지 않느냐? 너희가 더블 라이트한 단계를 가지면 “노고” “어려움”이라는 말은 끝난다. 너희는 직업에서는 해방되지 못했지만, 수고로이 일하는 데서는 자유로워졌다. 그러므로 감정들과 동기들이 변했다. 신탁관리자라는 인식이 있고 신을 위한 봉사에 대한 깊은 느낌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속한다는 느낌을 가졌느냐? 너희들이 받은 한 평을 너희는 바바의 집이라고 여긴다. 너희는 그것이 너희의 집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테지? 너희는 제 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 너희는 아버지의 집에서 산다. 너희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한다. 너희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태평하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아버지의 지시를 수행한다. 너희가 뭘

받았든 그것은 아버지에게 속하고 봉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비록 몸을 위해서 뭔가를 쓰더라도 몸도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도 역시 아버지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몸, 마음, 부를 아버지에게 이미 다 주지 않았느냐? 아니면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를 따로 보관해두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지? 너희 자녀들이 여러 생 동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밥다다는 이제 너희를 여러 생의 수고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다. 너희들 모두가 특별히 아버지를 만나려고 왔듯이 밥다다도 역시 특별히 너희들을 만나려고 왔다. 그는 서툰 리전에서 아버지 브라마도 역시 데리고 왔다.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에게 더 큰 사랑을 가졌다. 아버지는 어차피 사랑을 가졌지만, 아버지 브라마는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다. 그가 어째서 2종의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졌겠느냐? 브라마가 말하기를, “저는 오랫동안 2종의 외국인 자녀들을 불러내 왔습니다. 저는 참 여러 해 동안 자녀들을 불러 왔습니다” 라 했다. 그 부름 때문에 너희가 외국에서 여기 아버지에게 도착했다. 그러니 오랫동안 불리어 온 자녀들, 그렇게 오랫동안 불리던 끝에 마침내 온 자녀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특별한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는 육신의 형태를 가진 너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불러왔다. 이해하느냐? 참으로 여러 해 전에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계속 듣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자궁 속에 들어갔었지만 나중에 신체의 형태를 갖추고 태어났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 브라마는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다. 그는 미래의 행운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다.

다디 장키에게 : 2종의 외국인들이 아버지를 보며 행복해 하듯이, 그들은 너를 보면서도 역시 행복해 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육신의 형태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부양 받은 데 대해서 배우는 것은 도구 자녀인 너희에게서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가 너에게도 역시 특별한 사랑을 가진다. 다디와 디디, 그리고 도구 영혼인 너희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특별함은 모든 이가 그들 모두에게서 아버지를 본다는 점이다. 그들이 가진 아버지의 부양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이것이다. 디디나 다디를 볼 때마다 너희는 누구를 보느냐? 육신의 지원을 받아서 너희를 만나고 있는 아버지를 본다. 너희가 경험하는 것이 이것 아니냐? 너희는 모든 생각과 말에 아버지를 담아서 매사에 끊임없이 “바바, 바바”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영혼인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부양은, 너희들은 사라지고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들도 역시 오직 “바바”라는 말만 보고 듣는다. 오늘 디디도 역시 기억되고 있다. 그녀는 은밀한 갠지스강이 되었다. 어쨌든 그들은 세 개의 강들 중에서 강 하나가 은밀하다고 얘기한다. 디디는 지금 다디 안에 합쳐져 있다. 미묘한 형태로 디디도 역시 그녀의 감정과 경험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녀는 카르마의 굴레에 묶여 있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봉사의 관계 안에서 배역을 연기하려고 떠났다. 카르마의 굴레에 묶여있는 영혼들은 오직 그들이 있는 곳에서만 과제를 행할 수 있는 반면, 카르마티트가 된 영혼들은 한 곳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봉사의 배역을 연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카르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디는 너희들 모두와 함께 있다. 카르마티트가 된 영혼은 2종의 배역을 연기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속도가 아주 빨라서 1초에 원하는 곳 어디로든 갈 수 있다. 특별한 영혼들은 끊임없이 각자의 특별한 배역을 연기한다. 그래서 그녀는 바람처럼 가버렸다. 마치 영원한 불멸의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것도 역시 독특한 배역이었다. 처음부터 디디는 황홀경에 들어가는 독특한 역할을 맡았었다. 마지막에도 역시 그녀는 황홀경의 형태를 통해서 옮겨졌다. 앗차.

이 나라와 외국의 모든 차트락 (빛물 몇 방울을 갈구하는 새들) 자녀들에게, 이 사이클에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들 모두에게, 한 분 뿐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에 넋을 잃은 채 지내는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개별적인 만남 . 밥다다는 참으로 많은 장소에서 너희를 골라서 알라의 정원에 너희를 심었다. 이

행복을 느끼느냐? 너희 모두 지금 영적인 장미가 되었다. 너희는 항상 남들에게 영적인 향기를 보내주는 영적인 장미들이다. 너희들 모두에게 가까이 오거나 또는 너희와 연결된 이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들은 너희가 영적이며, 세속적이 아니라는 것을, 세속적인 것은 다 끝났다는 것을 느낀다. 너희를 보는 이는 누구든 오직 천사의 형태만 본다. 너희는 천사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언제나 더블 라이트한 단계에 안정되어 있는 천사로 보인다. 천사들은 항상 저 높은 데서 산다. 천사들의 그림을 볼 때 너희는 항상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그들을 본다. 어째서냐? 그들은 날아다니는 새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들은 늘 저 위 높은 데서 날아다닌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찾았고, 고귀한 장소, 고귀한 단계를 찾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 2 중의 외국인 자녀들의 편지에 대한 응답 .

바바는 모든 이의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가득한, 모든 이의 사랑과 기억의 편지들을 받았다. 자녀들은 아주 다정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가끔 다정한 불평도 역시 한다. 당신은 저희를 언제 부르실 것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그리로 갈 수 있게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아버지는 그런 불평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말하겠느냐?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의 사랑과 애정에 대해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에게 사랑 받고, 변함없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아버지에게 사랑과 협조도 역시 받는다. 앗차.

## 영성의 힘으로 충만해져라 .

때에 따라서 세상의 영혼들은 지금 영혼인 너희들을 영성의 모범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러한즉 영성의 힘으로 충만해져라. 이를 위해서는 그저 “한 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라는 표현 하나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속으로 거듭 이를 강조하며 완전히 순수해져라. 외국에서는 그들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드리시티와 영성의 힘이 해외 봉사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처럼 너희 얼굴과 눈에서 나오는 영적인 드리시티라는 천사의 도장이 찍히므로 이제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너희들의 천사의 형태를 드러내라. 영성의 힘은 말이 할 수 있는 것의 여러 곱절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너희가 소리 속으로 들어오는 훈련을 익혀왔듯이 영성의 힘도 역시 늘려라, 그러면 소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을 완전히 바친 자들의 시선과 태도는 순수해지며 그것들에는 영성의 힘이 깃들어있다. 그들은 몸을 보지 않는다. 눈이 첫째로 본 다음에 태도가 그리로 끌린다. “영적인 드리시티”라 함은 제 스스로나 남들을 영혼으로 본다는 뜻이다. 자 이제는 너희가 보되 몸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해라. 때에 따라서 지금은 모든 이가 새로운 광채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모든 생각, 말, 행위에 영성의 힘이 들어있게 해라. 하지만 너희가 제 스스로와 누구든 너희들이 봉사의 도구가 된 이들을, 너희가 말아서 돌봐야 할 밥다다의 귀중한 보석이라고 여길 때에만 비로소 영성이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항상 너희 마음은 너희에게 맡겨진 것이고 너희는 마음을 돌보는 데 있어 부정직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라. 너희의 마음과 몸뿐 아니라 학생들, 센터, 물리적인 사물들도 너희가 돌보도록 오직 명목상으로만 받은 것이라고 간주해라. 그것들을 돌보도록 너희는 그것들을 맡은 수탁관리인이다. 뭔가가 너희에게 맡겨졌다고 여김으로써 너희는 이끌림에서 자유로이 지낼 것이다. 이끌림에서 벗어나 자유로우면 영성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신성한 눈이 더 맑아질수록, 즉 너희가 영성으로 더 충만해질수록 너희는 눈을 통해서 밥다다와 그의 창조물과 물질세계, 미묘한 세계, 비물질 세계 등 세 세계의 이미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마치 영사기로 상영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뚜렷할 것이다. 지금은 영성의 힘으로

충만해져야 할 때다. 영성이 없으면 너희는 마야의 온갖 다양한 유형에 물들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시험을 치를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즉 영성의 힘으로 충만해져라, 오직 그제야 비로소 너희가 모든 유형의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너희는 신을 위한 봉사에 쓸 귀중한 것, 돌봐야 할 것으로서 몸을 위탁받았다. 맡겨진 뭔가를 볼 때 너희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맡긴 분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에게 속하는 귀중한 것이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김으로써 영성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지각은 항상 마음이 놓이고 편안함을 느끼며 피로를 모를 것이다.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돌보는 방식에서 만일 부정직하다면 너희는 영적이 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안심이 되지 않고 겁이 날 것이다. 변함없이 명랑하게 지내는 것이 지식의 미덕이다. 명랑한 자들은 남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틀림없이 그들을 명랑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에 영성이라는 한 마디만 더 보태라. 명랑한 산스카르를 가지는 것은 궁핍할 때에도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일체의 모든 나약함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분과 항상 동반하며 머물 때 너희는 그 동반자인 분의 영성에 물들 것이다.

뭔가가 분위기 속에 퍼지면 그 영향은 꽤 떨어진 곳에서도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쉬운 요기이며 고결한 영혼인 너희들의 수가 이렇게 많으니 너희는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어서 그 영성이 너희 주변의 분위기로 하여금 영혼들을 끌어당기게 한다. 분위기의 토대는 그 사람의 태도다. 너희가 영성의 힘으로 태도를 완전히 강력하게 만들지 않고는 너희가 원하는 봉사의 확장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그들은 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에워싼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분위기를 너희 태도로 감싸면 아무도 그 영적인 이끌림이 만든 테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자, 이젠 그런 봉사를 해라! 누가 어떤 유형의 권위나 기분상태를 갖고 너희에게 오든, 그 사람이 너희가 지닌 미덕의 인격, 너희 영성의 인격, 너희가 가진 모든 힘의 인격에 머리 숙여 절하게 해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격으로는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영성의 힘이 그들의 내면의 자세를 변화시킬 것이다. 향기와 꽃이 따로 있지 않고 향기가 꽃 속에 합쳐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성이라는 향기가 너희 안에 합쳐져 있게 해라. 향기는 먼 거리에서도 남들을 끌어당길 정도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향기가 어디서 풍겨오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너희의 영성은 세상을 끌어당길 것이다. 따라서 지식이 풍부한 그런 방식으로 자비로워지는 것과 더불어 영성의 권위도 역시 가져라. 현재의 때에 따라서 영성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전쟁과 싸움은 사람들에게 영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 영적인 장미가 되어 영성의 향기를 퍼뜨려라. 이것이 브라민 생의 직업이다.

**Blessing:**    송배받을 가치 있고 기억될 가치가 있는, 기부하는 자가 되어 너희의 강력한 단계를 통해서 자비를 행해라.

마지막 시기에 나약한 영혼들이 완전하고 완성된 영혼인 너희에게서 약간의 성취라도 경험하면 그들은 마지막 경험을 그들의 산스카르로 가지고 가서 반 사이클 동안 집에 머물 것이다. 그러다 동시대에 그들은 너희의 신봉자가 되어 너희를 숭배하고 칭송할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렇게 약한 영혼들에게 위대한 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 너희의 경험들을 기부해주고 자비를 쌓아라. 너희의 강력한 모습을 통한 이 1초의 기부와 자선은 너희가 반 사이클 동안 숭배되고 기억될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Slogan:**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초연한 관찰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